

# 總資源豫算으로 본 1971年 經濟展望

經濟 技術 調查 센터

主任 研究員

金 永 佑

## 一. 安定基調確立의 問題

1971年은 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마지막 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71年總資源豫算은 兩次經濟開發計劃의 實績을 總整理 評價하고 韓國經濟의 새로운 方向定立을 해야 할 다른 해의 경우와는 相異한 특별한 意義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까지 經濟開發計劃이나 그 年次計劃으로 理解되는 總資源豫算은 成長目標나 部門別投資配分等 諸指標에 있어서 計劃과 實績간의 差異가 너무 컸고 目標超過達成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처럼 認識된 結果 計劃으로서의 意味와 役割이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過去 總資源豫算은 部門別 政策의 最善에 力點이 두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政策의 相衝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想起한다면 總資源豫算에 의한 그해의 經濟展望을 해 본다는 것은 限界가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誤診이 될 우려마저 있다.

다행히도 1971年 부터는 總資源豫算이 名實 共히 資源의 最適配分과 効率的 經濟成長을 이룩하기 위한 國民經濟의 總合表로써 그리고 모든 經濟政策의 總和로서 年次別計劃의 役割을 다할수 있도록 部門別 政策目標을 뚜렷이 내세우고 政策間 補完性 乃至 綜合性 缺如로 인한 試行差誤를 豫防하려는 方案을 講究하였기 때문에 總資源豫算의 大綱을 보고 經濟의 흐름을 事前에 豫測하는데 비교적 妥當性을 부여할 수 있다 하겠다.

특히 1971年은 兩次 5個年計劃을 遂行하면서 政策基調를 바꿔나가야 할 처음 맞는 轉機라는데 留

意해야 한다. 卽 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主要目標은 이미 1969年에 早期達成했고 따라서 2次 5個年計劃의 最終年度로서의 意義보다는 3次 5個年計劃의 基盤構策의 해를 부각되며 앞으로 계속해서 經濟가 발전되기 위하여는 高度成長過程에서 胚胎된 여러가지 副作用을 解消 調整해나가야 할 問題에 直面해 있다. 또한 1969年 末부터 1970年 上半期까지 政府가 追求한 全面緊縮政策이 金融構造 正常化를 도모하려는 政策目標 以外에도 企業再編成의 促進劑의 구실까지 했고 이것이 政策이라는 觀點에서 過然 옳은 것이었느냐에 對하여 아직도 贊反 兩論이 엇갈리고 있는 이때 今年 下半年부터 緊縮政策을 事實上 中斷할 조건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1971년의 經濟「무드」의 方向設定을 어디에 둘것이냐에 明白한 見解가 서지지 않은듯하다. 다시 말하면 金融이란 성급하게 굳다고 좋게되는 것도 아니며 노아먹인다고 해서 스스로 잘되는것도 아니다. 全面緊縮도 放慢한 金融政策과 똑같이 經濟에 利롭지 못한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金融政策을 轉換할 때는 여러가지 聯關變數의 움직임을 注視하고 조심성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政府는 過熱成長을 抑制하고 3次 5個年計劃에 進入하기 위한 調整政策에 重點을 두면서 安定基調를 더욱 굳혀나가겠다고 한다. 어느 程度로 物價上昇을 抑制하고 完全雇傭狀態로 收斂시키는 것이 眞正 安定을 意味하느냐도 問題러니와 1970年 보다 35% 增加된 輸出目標 1,350百萬弗, 116百萬弗을 前年보다 統計策定한 海外貯蓄의 實現

性問題, 社會間接資本 및 農業部門의 集中的投資 그러면서도 一般財政負擔率을 現年度 水準維持하면서 과연 1970년 보다는 安定된 경제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참으로 判斷하기 至難하다. 더우기 政府는 鑄物鍊 特殊鋼 重機械 造船工場等 四大核心工場의 建設을 促進하겠다는 新規投資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또한 1971년에는 총선거가 있는 해이다.

## 二. 計測된 主要經濟目標

1971년 總資源豫算에 依하면 經濟成長率을 10%로 維持하면서 安定基調를 계속 다지고 經濟의 成長底力을 더욱 擴大시키는 것을 基本方向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政府는 物價安定, 國際收支의 改善, 農業開發의 促進, 輸送力의 擴充 및 現代化, 科學技術 및 人力開發等 主要施策을 講究함으로써 安定成長을 도모할 것을 計劃하고 있다.

産業別成長率을 보면 農林水産業 4.5% 鑛工業 17.0%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비스業 9.0%로 1次 産業部門의 成長은 1970年 計劃值보다 0.5% 더 높게 策定하고 있으며 3次 産業部門의 成長率은 1969年 1970年과 같이 經濟성장템포와 같은 水準으로 잡았다. 하지만 2次 産業部門成長率 17.0%는 1769년의 21.0% 1970년의 18.5% 보다 4%와 1.5%가 각각 낮은 成長率을 보이고 있는 것이며 더우기 製造業의 「슬로우 다운」현상도 같은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1971년 産業構造는 1次 産業 25.4% 2次 産業 29.7% 3次 産業 44.9%로 工業化展開가 더욱 促進될 것으로 展望되나 限定된 財源을 가지고 鑛工業部門에 보다 集中的投資를 하지 않는 限 工業의 高度化, 企業의 國際競爭力強化 그리고 輸出 35%의 伸長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인가를 充分히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産業別 成長率

단위 : %

|                                      | 15.9           | 1970           | 1971           |
|--------------------------------------|----------------|----------------|----------------|
| 國民 總 生 產                             | 11.9           | 1.00           | 10.0           |
| 農 林 水 產 業                            | 15.9           | 4.0            | 4.5            |
| 鑛 工 業<br>(製 造 業)                     | 21.0<br>(22.3) | 18.5<br>(18.5) | 17.0<br>(17.5) |
| 社會間接資本 및<br>其他 서비스業<br>(社 會 間 接 資 本) | 15.6<br>(28.4) | 9.0<br>(17.0)  | 9.0<br>(17.0)  |

다음 總投資는 1970年 計劃投資 보다 920억원이 많은 8,053억원(經常價格)을 維持하며 投資率을 今年 28.8%에 1.9%가 未達하는 27.1%로 定하였다. 이와 같은 投資率의 鈍化傾向은 安定基調를 維持하기 위한 過熱投資를 시킨다는 意味로 解釋되나 여기에는 몇가지 考慮해 볼 問題가 있다. 投資財源調達에 있어서 國內貯蓄率은 18.3%에서 19.1%로 提高시키는 反面 海外貯蓄率은 10.5%에서 8.0%로 大幅줄여서 財源調達의 對外依存度를 大幅줄일 것으로 計劃하고 있으나 오늘날 우리 나라 경제여건이나 投資財源調達慣習을 급격히 匡正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外資導入 絶對額을 1969年 또는 1970年 水準보다도 더 낮춘다는 것이 實現性이 있을 것인가는 생각해 볼 問題다. 단일 外資導入需要가 增大되고 이에 따라 海外貯蓄率이 늘어나게 된다면 27.1%의 投資率은 增大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投資配分面에 있어 社會間接資本部門은 高速道路 港灣건설 建設사업 등을 계속 확대 추진하고 農業部門의 投資를 擴大할 것임에 비추어 지난 몇년 동안의 投資率을 오히려 上廻할 전망이 있는데다가 四大核心工業 및 石油化學工業을 中心으로 重工業 위주의 公營발전을 推進하고 輸出增進을 위한 輸出能力擴充에 따른 新規投資需要가 相當히 있을 것으로 豫想되는데 이들이 지난날 過熱投資의 패턴을 다시 반복치 않을까 展望되기도 한다.

더우기 國內財源調達에 있어 財政負擔이나 國民租稅負擔率을 現年度 水準으로 維持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以上 政府主導的 強制貯蓄에 의한 資本蓄積이 中心을 이룰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今年의 租稅收入이 稅源의 枯渴에 따라 歲入缺損의 우려가 간간이 云謂되고 있는 점을 想起할때 그리고 企業의 財務構造 不健實과 政府의 全面緊縮政策에 따른 資金循環의 硬化現象을 적어도 半年 以上 겪은 民間企業이 그렇게 세금을 낼 수 있으며 또한 자기자본의 침식과정을 되풀이하는 結果가 招來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려되는 점은 보는 觀點에 따라 다른 筈이 나올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資本의 效率性이란 면과 民間主導的 經濟體制가 중국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官營經濟的 資本蓄積인 投資는 所望스러운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수가 없다.

貿易輸出은 1970년 보다 35%가 增加된 1,350

百萬의 目標을 設定하였는데 이는 國民總生産의 19%로 매우 높은 貿易依存度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總輸入의 增加로 10%線에서 維持하고 自力輸入의 比重을 約 65%로 한것을 計劃하고 있다. 따라서 1971년 輸出入은 輸出의 飛躍的 伸長과 輸入의 果敢한 抑制로 表示되어 國際收支改善을 위한 政策意圖가 明白하지만 우리는 과거 總資源豫算에서 輸入抑制를 표방하지 않은 해가 없었음을 상기할 때 과연 1971년에는 수입이 억제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의 一貫性있게 遂行될 것인가 크게 關心이 끌린다.

投資資源調達

단위 : 10億원

|                 | 1969             | 1970             | 1971            |
|-----------------|------------------|------------------|-----------------|
| 總投資<br>(投資率)    | 614.6<br>(30.0)  | 713.5<br>(28.8)  | 805.3<br>(27.1) |
| 國內貯蓄<br>(國內貯蓄率) | 385.6<br>(18.8)  | 452.2<br>(18.3)  | 568.7<br>(12.1) |
| (在庫除外貯蓄率)       | 62.7<br>(15.5)   | 63.4<br>(16.0)   | 70.6<br>(17.2)  |
| 海外貯蓄率<br>(百萬弗)  | 229.0<br>(794.4) | 261.3<br>(843.0) | 36.6<br>(727.0) |
| (海外貯蓄率)         | 37.3<br>(11.2)   | 36.6<br>(10.5)   | 29.4<br>(8.0)   |

註: ( )內는 對 GNP 比率임

특히 輸出은 量的 目標達成으로만은 큰 意味가 없음을 強調한다. 따라서 政府는 外資稼得率을 提高하고 新規商品의 積極 開發과 輸出市場開拓 내지 多邊化를 圖謀할 政策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輸出은 획기적인 量的伸長은 이룩하였으나 아직도 그 誘發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는 構造的 發展體制에 突入하고 있지는 못하다 即 原料의 國產化, 技術의 土着化, 聯關産業發展의 未洽等 産業構造的 脆弱相에 依한 輸出利益의 減殺는 量的目標達成 보다 오히려 더욱 시급히 克服되어야 할 것이며 原價에도 未達하는 輸出價格 이에 따른 企業의 輸出損失의 累積은 輸出擴大를 위한 企業의 創造의 努力의 發生與件을 없앤 結果가 되고 있으며 가장 非能率的인 政府의 行政的 輸出政策이 輸出戰略의 核心을 이루게 하는 결정적 原因이다. 더구나 수로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輸出競爭이 加速的으로 치열한 국제경제여건에서 政府의 行政的 輸出支援政策은 한계에 부닥치고 있으며 여기에서 活路를 求해야 할 긴박하고도 중

요한 시기에 당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輸出 35% 增加策定한 輸出計劃은 質的深化를 통한 國民經濟에의 기여를 높이기 위하여 重點的인 輸出支援政策이 새로운 次元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三. 展望되는 것

1971년 우리나라 경제는 한마디로 表現해서 安定基調를 指向하는 政策目標과 計劃自體에 도사리고 있는 팽창정책을 포함하여 총선거등 安定成長에 도전하는 여러가지 인프레 要因과의 不斷한 差別과 대립의 해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成長率을 전년 보다 1%가 적은 10% 線을 유지하고 投資率을 縮少 調整하는 同時에 國內貯蓄率을 大幅的으로 增大시키고 한편으로는 折衝豫算에 依한 健全財政政策을 追求하고 通貨量增加 限度를 年間 25%로 規制하여 放慢한 流動性膨脹에 따른 인프레를 收束 抑制하는 傳統的인 安定政策을 政策目標로 삼고 있다. 그러나 社會間接資本과 農業部門에의 集中的 投資配分은 需要底邊을 擴大시키면 勿論 財貨 및 用役의 供給을 直接隨伴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 「타임 레그」만큼의 超過需要를 發生시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을 加速化할 우려가 있다. 뿐만아니라 投資計劃에 있어서 既存投資의 效率性提高에 力點을 둔 듯 보이지만 所要資金 1억弗 以上の 19大核心工場建設의 促進과 1,350百萬弗 輸出目標達成을 위한 輸出能力擴充等 新規投資의 需要가 計劃自體에 포함될 수 밖에는 없겠고 여기에 前述한 超過需要가 덜 부쳐지면서 總選舉를 圍繞한 자금살포 및 行政的 物價抑制政策의 해이 가능성등을 솔직히 말해서 人프레의 만연을 더욱 심화시킬 듯이 보인다.

반면 이와같은 安定基盤이 뒤흔들릴 전망이 보이는 가운데에서 財政規模의 팽창과 國民租稅負擔을 現年度 水準에서 維持하고 또한 通貨量抑制가 海外部門 및 政府部門의 通貨量增加를 民間部門에 轉嫁시켜온 지난날의 政府 一邊度的 通貨供給 「찬넬」의 隋性을 一大 革新하려는 政策的 比견을 總資源豫算에 內包하지 않은 것 등은 企業資金의 逼迫과 經營與件의 惡化로 企業의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한 土臺를 이해에도 성취시키지 못한 것이 내다 보인다.

輸出의 획기적 증대와 輸入抑制에 따른 國際收

支展望은 比較的 期待해 불안한 것이나 여기에서는 夤 輸入을 10% 線의 增加로 抑制維持할 수 있을 것인가가 關鍵이다. 現在 우리나라 輸入構造는 穀物 原油 原資材等에 그 大分을 占하고 있는 輸入偏向의 産業構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基礎資材의 輸入抑制에는 限界가 있을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10%線으로의 輸入增加를 막기 위하여는 樂觀不許이다. 萬若 輸入需要를 適正線에서 抑制하지 못할 경우 元利金償還負擔의 過重과 海外貯蓄이 計劃 보다 增大될 可能性等은 반대로 국제수지를 악화시킬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1971년에는 換率現實化問題 外資導入企業의 健全化等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根本的問題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陣痛의 해로 점점될 것이다.

특히 總資源豫算에서 保險 信託을 포함한 貯蓄性預金을 2,300億원으로 내다보고 있고 政府 및 民間의 消費抑制를 통한 國內貯蓄의 擴大를 내다보고 있으나 이는 인프레傾向, 企業經營惡化 國際收支問題 그리고 經濟社會風土의 健全化等 諸問題가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에 오로지 달렸다.

마지막으로 우리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경제여건은 美國의 輸入制限措置에 따른 EEC 諸國 日本等 先進諸國의 對應措置가 생길것이며 美國의 政策이 根本적으로 轉換되지 않는限 예상할수 없는 소용돌이를 친것이다. 또한 韓日間의 經濟協力도 새로운 方法摸索은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며 國際資本市場의 硬化現象이 크게 解消되지 못한 것으로 내다 보인다.

## <토막소식>

### 設備更新의 最適時期의 決定方法

設備을 代替하는 가장 經濟的인 期間에 對해서는 減價償却, 投資額, 保守費 陳腐化等 가지가지 要素가 고려의 對象이 된다.

更新時期의 決定에 關한 明確한 解法은 없으나 問題를 쉽게 풀수있는 方法은 있다.

〔減價償却費〕 取得價格—그때의 殘存價値이며 年年償却費가 내려간다, 따라서 減價償却의 點에서 말한다면 設備은 永久히 가지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이다.

〔初期投資額〕 購入價格, 利息 保險 稅金 등의 實際의 支拂額을 計算하여야만 된다. 初期投資額의 Cost로 每年 내려간다.

〔代替費用〕 이것에는 價格의 上昇(年率 4~5%) 또는 貨幣價値의 低下(年率 2%)을 생각할 수 있다.

〔保守費 修繕費〕 5~6年間의 修理費는 初期投資額과 같은 정도가된다,

〔休止損失 Cost〕 老朽化에 따라서 增加한다.

〔陳腐化에 依한 Cost〕

生産性이 높은 機械가 出現했을 時 舊式機械로 運轉한다는 것은 損失로 생각된다. 이런점에서 말한다면 生産性이 높은 機械가 나올때 마다 更新하는 것이 利得이다.

다시말해서 年間 2,000時間 稼動하는 6萬弗의 機械에 對해서 試算하면은 6年째의는 Cost는 減價償却費 \$3.5 初期投資額 Cost \$ 1.62 代替 cost \$ 0.72 保守費 \$ 5.00 休止損失 cost \$ 2.47 陳腐化 Cost \$ 2.00 合計 \$ 15.31 로 된다.

合計 Cost를 每年에 對해서 計算하면은 1年째 \$ 14.09 2年째 \$ 12.76 3年째 \$ 12.48 4年째 \$ 13.67 5年째 \$ 14.54 6年째 \$ 15.31 가 되며 이로보아서 3年째 代替하는 것이 가장 有利한 것으로본다.

Rock Products

73 1970